

# 거름종이에 걸린 하늘

서해 시집

시지태

# 머리말

요즘 모두 힘들 때 다친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싶어 부족하지만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집은 출판 이전에 지인분들에게만 드리는 미리보기용이니, 책으로 평생 소장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시인 서해



# 목차

머리말 · 01

새 · 03

마음이 운다 · 04

나를 위한 시 · 05

내 마음대로 · 06

돈 · 07

해답 · 08

위, 아래, 옆, 정면, 측면, 윗면 · 09

친구 · 11

개성(個性)2 · 13

어둠 · 14

반딧불이 · 15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 16

걷는 길 · 17

사랑, 나눔 · 18

빨래 · 19

봄이 꺼안은 노란색 · 20

저는 도화지입니다 · 21

말(馬) · 22

빛과 빛 · 23

가을 놀이 · 24

새

새가 난다.

하늘에서는 자유로울까?

아닐 거다.

지구 안에 갇혀 있으니.

왜

시를 통해 깨달음을

느껴야 하나?

그래도 새는 나름대로

자유로운가 보다.



# 마음이 운다

이유 없이,

이유 있어

마음이 운다.

사랑 없이,

사랑 있어

마음이 운다.



# 나를 위한 시

나를 위한 시를 써보자.

무엇에 얽매이지 말고 써보자.

생각 없이 시를 써보자.

아들리사니카타푸니스타니까.

마음이 혼잡하다.

오늘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한 시를

내가 쓸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선크림을 태양 위에 발라보자.

태양이 왜 필요한가,

기쁨 위에 좌절을 심어보자.

기쁨은 왜 필요한가,

사랑 안에 이별을 넣어보자.

사랑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돈

화폐를 보니,  
우리 조상님은  
안 웃네요.

돈 속에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가요.

그들은 언제  
웃나요.

어제 웃었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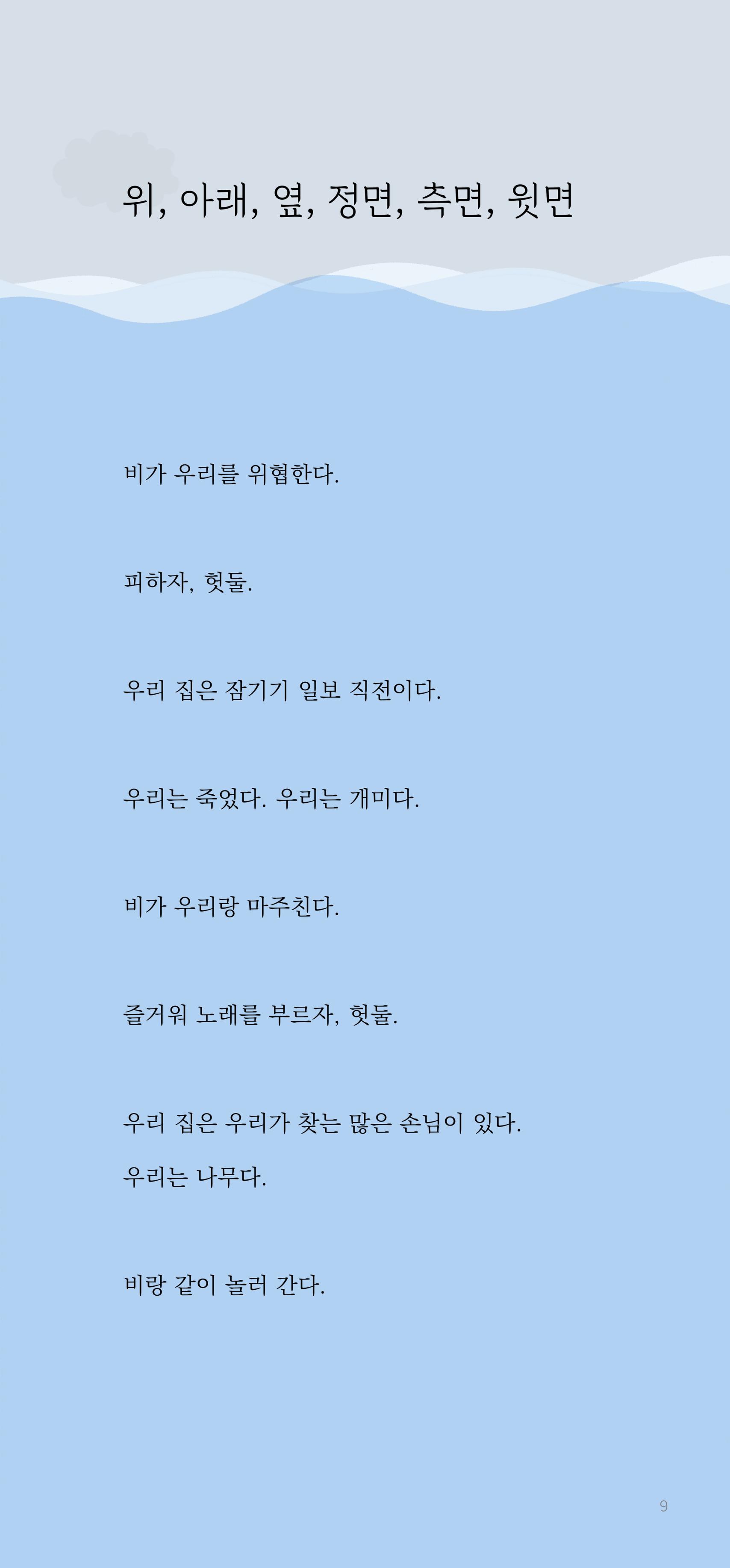
# 해답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생각,  
내 최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생각이 들어 있고,  
최후가 있는  
성경이 눈에 띈다.





위, 아래, 옆, 정면, 측면, 뒷면

비가 우리를 위협한다.

피하자, 헛둘.

우리 집은 잠기기 일보 직전이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개미다.

비가 우리랑 마주친다.

즐거워 노래를 부르자, 헛둘.

우리 집은 우리가 찾는 많은 손님이 있다.

우리는 나무다.

비랑 같이 놀러 간다.

떨어지자, 헛둘.

우리는 왜 내려가는지 모른다.

우리는 천둥과 번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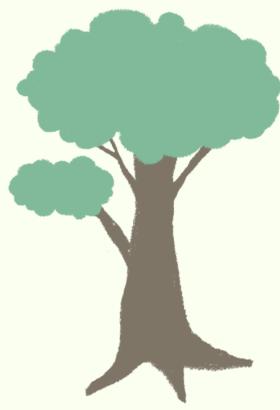
# 친구

산에 가다

나무를 뭐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말합니다.

"나무라지 마라".



해에 가다

산을 뭐라고 했습니다.

산이 말합니다.

"태! 산 걱정이 많다".



달에 가다

해를 뭐라고 했습니다.

해가 말합니다.

"해, 헤헤하게 살아".



꽃에게 가다

달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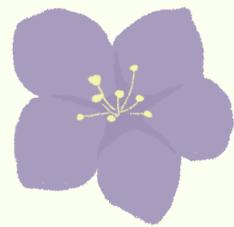
"달, 달하게 살아".

나에게 돌아오기 전  
꽃을 뭐라고 했습니다.

꽃이 그렇습니다.

"꽃이, 꼬치 묻지 말라고".

그들은 나의 주변을 도는  
친구들입니다.



## 개성(個性)2

빨간 꽃과 마주 보는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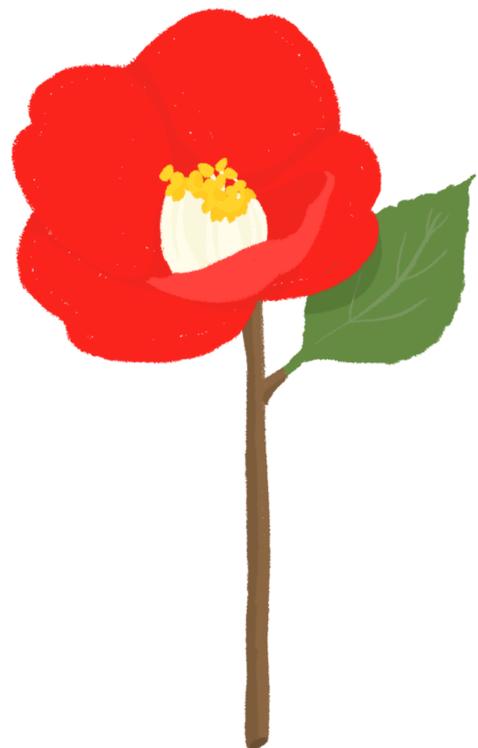
하늘색을 걷어내자.

하늘이 아니다.

초록 나무와 마주 보는 어둠 속의 빛,

깜깜함을 걷어내자.

밝다.



# 어둠

별들이

집들이를 갔나 보네.

태풍이

놀러 왔네.

안구의 파수꾼이

자나 보네.

사랑을 주머니에 넣네..



# 반딧불이

반딧불이와 밤하늘을  
무작정 떠돌던 그의 동료들.

그들은 낮의 그림자를 닮은  
너를 그리워한다.

밤의 빛으로 아니, 혹은  
빛의 일부인 너를 생각한다.

할 말 잃은 나는  
오늘도 울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흘리는 수밖에.

저기 반딧불이를 쫓아가는 벌레  
누군가에게 쫓기는 벌레

#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선풍기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나에게

흔들거리는

바람

조명을

눈 아파하는 나에게

선선한

달빛

마음이 닳고 닳은

지우개 가루가 된 나에게

상기한

별빛

기적이 올리는

어둠

어둠을 북 치는

기적



# 걷는 길

오늘도

비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비는 여기저기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많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오늘도

걸으면서  
비의 발자국은  
모자와 그보다  
낮은 것에  
생깁니다

## 사랑, 나눔

햇빛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가 덜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더욱 빠르게

아물은 것입니다

다리미로 인상 쓴 주름을

펴서 환한 미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 빨래

비 맞은

구름이 햇빛을

받기 위해 맑은 날

나왔습니다

구름은 우리로 하여금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기 위해 노력하나 봅니다

구름은 꼬맹이에게는

솜사탕이 있는 둥근 사탕인데,

구름 아래 있는 것 때문에

아픈 저에게는 하늘에 떠있는

막힌 배수관 같습니다

비 맞은

구름이 햇빛을

받기 위해 나온 날,

내 마음을 빨래합니다



# 봄이 껴안은 노란색

별이 가다가

흘린 꿀을

먹은 노오란 개나리

옆 친구에게

꿀을 나눠 주고

웃는 노오란 개나리

개나리가 먹은

꿀 냄새 맡고, 놀러 온

노오란 개나리 친구,

노오란 햇빛

꿀 타는 냄새나고,

꿀 먹는 소리 나는

봄이 껴안은 노란색,

봄에게 달려와 안긴 노란색



# 저는 도화지입니다

---



더욱더

노래지면서 익는

별들을 보는 제 마음을

하늘이 칠합니다.

제가 칠하는 줄만

알았던 검정 도화지

화가로써 색감을

넣으려고 했던 텅 빈 별하늘

낮은 곳으로 오는

마음 낮춘 하늘과

미덕 갖춘 별들이

어찌 이렇게 오는지요.

저는 도화지입니다.



# 말(馬)

말이 달리는  
둥그런 공원

말이 달리는  
둥그런 지구

속을 알면  
어이 아파서  
주변만 돈다



# 빛과 빛

꽃이 바닥을  
향해 자라고,

나뭇잎이 하늘을  
향해 떨어지고,

풀잎이 길 잃어  
반대를 향해 나아간다면

마음이 허전한 것이다.

회전된 마음은  
회전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러므로 빛을 보자.

빛은 빛을  
향해 나아간다.



# 가을 놀이

가을 하늘  
새들이  
날개의  
장단에 맞춰  
풀에게 연주합니다.

가을 하늘  
한 할아버지가  
햇빛의  
장단에 맞춰  
세상에게 연주합니다.

가을 하늘  
많은 꼬맹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춰  
잠자리를 찾습니다.

가을 하늘에서  
많은 장단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 거름종이에 걸린 하늘

기획 태초에

편집 정진희

디자인 정상희

문의 [general@cgtae.com](mailto:general@cgtae.com)



우리는 거름종이에 걸려진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시지태**